

불우한 운명을 역전의 지렛대로 삼은 동무

박천홍/집필가



▲ 이제마

만인은 불행 앞에 평등하다. 불행과 대면한 인간의 의지만이 불평등할 뿐이다. 불행은 대부분의 인간을 무릎꿇게 하지만, 몇몇 인간은 불행을 밟고 일어선다. 역사에 입적된 인물들은 대개 후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사에서 자신의 생애에 덮친 불행을 역사의 축복으로 전환시킨 인물이 있다. 사상의학의 창

시자인 동무 이제마(1837~1900)가 바로 그다.

이제마의 생애에는 네 겹의 불행이 그들을 드리우고 있다. 첫 번째는 가족의 비극이다. 그는 조선시대에 불행의 낙인이었던 서자로 태어났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는 주막집 주모의 딸이었다. 그에게는 지역차별이라는 악조건이 덧붙여졌다. 조선정부는 그의 태생지인 함경도 함흥지방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았다. 시대마저 순탄치 않았다. 세도정치로 민정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민중들의 반란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불우한 환경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잦은 병마였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약해 잔병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병인 위궤양과 신경염으로 두루 명의를 수소문해 치료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때부터 그는 전통의학에 회의하기 시작했다. 열다섯의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방랑생활을 시작한 그는 굶주림과 병으로 시달리는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했다. 4, 5년 뒤 고향으로 돌아와 재산을 모조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집을 나섰다.

그는 방랑생활 중에 우연히 한석지가 지은 《명선록》이란 책을 발견하고 고루한 성리학적 세계를 넘어선 실사구시의 학문에 눈을 떴다. 서울에서 무장 김기석의 눈에 들어 몇몇 관직을 거처긴 했지만 곧 벼슬을 던져버리고 의학연구에 몰두했다. 오랜 방랑생활에서 엿본 민중들의 생활상과 자신의 병마와 싸운 체험을 바탕으로 사상의학을 창안했다. 드디어 1894년 그의 사상의학을 집대성한 《동의수세보원》을 완성했다.

고향에 돌아온 이제마는 의병을 물리친 공로로 고원군수가 되었지만 1년 만에 벼슬을 팽개치고 보원국이란 약국을 열었다. 그는 종래 한방처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이나

풍토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초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맸다. 여러 가지 초근목피와 열매를 씹어보고 먹어보면서 자신의 몸을 실험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또한 약국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사상의학의 내용을 보완·수정해갔다.

그는 병자의 체질에 따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 기이한 행적도 불사했다. 환자에게 일부러 욕설을 퍼부어 그의 성정을 살피는가 하면, 약국으로 찾아온 처녀의 속옷을 낚아채 그녀가 약을 쓰고 비명을 지르게 해서 처방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진해서 환자를 찾아가 침식을 같이 하며 그의 체질을 밝혔다. 이런 행동으로 오해를 산 그는 봉변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의 약국은 병자들로 문턱이 닳았다. 그는 거의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가난한 병자들에게 간혹 좁쌀 한 말 정도를 약값으로 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환자는 들끓어도 집안 살림은 웅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제마는 64세 되던 해인 1900년 집에서 목침을 베고 반듯이 누워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명의다운 마지막 모습이었다.



▲ 드라마 '태양인 이제마'의 한 장면

이제마의 생애는 벤처정신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관념의 세계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민중구제의 방도를 찾았다는 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한 채 철저하게 임상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 개인의 명리보다는 생명구원이라는 의료인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불

우한 운명을 역전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제마는 오늘날에도 귀감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다.

• 필자 소개 •

필자 박천홍씨는 고려대학교원에서 사학을 전공했으며, 서평전문지 《출판저널》 편집장을 역임한 후 현재 역사 관련 책을 집필 중이다.